

나의 인생관

나 운 영

아이야 그렇게 미워하질 마십시오.
그렇게 마구 때리질 마십시오.
낙엽이 솔솔 내리는 긴 숲길을 아무런 미움이 없이 나도 같이 갑시다.
어쩌다가 멋 모르고 태어난 당나귀 나 한 마리
살고 싶은 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 죄 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죄라면 하는 수 없는 죄인이올시다.
낙엽이 솔솔 내리는 저문 길을 보십시오. 나도 함께 소리 없이 끼어 갑시다
〈조병화 지음〉

나는 낙천주의자도 아니요, 비관론자,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는 항상 자업자득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자업자득이요, 못 사는 것도 자업자득입니다. 나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네들은 누구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패해 가는 것도 그 책임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되어지는 모든 일—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업자득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따라서 별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을 가련다」란 말은 나의 생활신조입니다. 우리네들은 남의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게 보여 그것을 따르려 하므로 그런 데서 시기와 질투, 모략, 중상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나이인 까닭에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남과 경쟁하려는 생각조차 별로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과 나 자신이 할 일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모두 달리는 그 길을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즉 남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길을 조심스럽게 달릴 따름입니다.

민족적 아이디어와 현대적 스타일을 결부시킴으로써 현대적 한국음악을 창조하는 일과 서양음악의 작곡이론을 한국적으로 섭취하여 민족음악 이론의 작곡학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것만이 나의 갈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란 말이 있습니다만 나는 이 말을 바꿔 생각하기를 즐깁니다.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이 말에 나는 한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씩어 백 년 살아 무엇하리」란 말이 있다시피 하는 일 없이 오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몇 해 전에 핀란드의 대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가리켜 감히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란 말을 토했던 일이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연금을 주고 별장까지 주었던만 그는 30년 동안 작품 하나 쓰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자연사(自然死)가 되어 버린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내 나이에 비해서 해 놓은 일이 적은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해도 벌써 다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한 일 없이 또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란 말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듯싶습니다.

「자업자득」, 「나의 길을 가련다」,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존재 의미, 목적, 가치를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962. 11. 사상계〉